1992년 1월 29일 제123회 참의원 본회의

❍ 일시: 1992년 1월 29일(수) 오전 10시 2분 개의

❍ 발언자:

- 쓰시마 다카카쓰(對馬孝且) 의원(일본사회당·호헌공동 소속 참의원 의원)
- 미야자와 기이치(宮澤喜一) 내각총리대신(대장성 관료, 정치가, 자민당 소속, 참의원 의원, 경제기획청 장관, 중의원 의원, 통상산업대신, 외무대신, 내각관방 장관, 부총리, 대장대신, 우정대신, 농림수산대신, 재무대신, 자민당 총무회장, 자민당 총재)
- 와타나베 미치오(渡辺美智雄) 국무대신(세무사, 정치가, 중의원 의원, 대장성·농수산성·후생성 장관, 부총리)
- 무라카미 마사쿠니(村上正邦) 의원(자유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노동대신)

❍ URL: 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15254X00219920129&spkNum=2&current=33

❍ 해제(개요 및 특징)

쓰시마 의원은 **위안부**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폐만 일삼는다고 규탄하면서 조속히 조사를 진행하여 개인 보상할 것을 요구함. 여당인 무라카미 의원도 **위안부** 문제의 비인도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역설함. 이에 대해 총리와 외무대신은 반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면서 현재 조사와 재판 등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외교적 연설에는 '**종군위안부**'라는 표현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항변함.

❍ 주요 내용 번역

▷ **쓰시마** "저는 일본사회당・호헌공동을 대표하여 총리의 시정방침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. (중략)

그중에서도 식민지 지배 이래 조선반도 사람들의 고통, 특히 **종군위안부**, 강제연행, BC 급 전범과 같은 매우 큰 폐를 끼쳤습니다. 총리가 방한(訪韓)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사죄하신 **종군위안부** 문제는 정부는 물론 일본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죄입니다. 특히 정부가 그저 숨기기만 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답변을 국회에서 한 점은 심히 지탄받아야 합니다. 지금 국회에 출석하신 네 분의 대신 연설에 **종군위안부**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은 왜입니까. 조속히 조사를 진행하여 개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. 향후 방침과 대응에 대해 총리대신 및 외무대신

의 답변을 요구합니다.”

(중략)

▷ **미야자와 국무대신** “답변드리겠습니다. (중략)

이른바 **종군위안부**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, 이는 관계자가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. 방위청에서 발견된 자료 혹은 관계자의 증언 등을 보면, 이른바 이들의 모집 및 위안소 경영 등에 구 일본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번 한국방문 당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, 이들 **종군위안부**로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게 충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거듭 표합니다.

또 이런 잘못을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서 평화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고, 일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,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

또 작년 말부터 관계 성청에서 이른바 이 **종군위안부** 문제에 정부가 어떻게 관여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, 앞으로도 계속 성심성의껏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.

이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언급하자면,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합니다.”

(중략)

▷ **와타나베 국무대신** “답변드리겠습니다.

우선 **종군위안부**라는 말이 외교 연설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, 확실히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는 결코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. 전쟁은 매우 비참한 것이며, 죽임을 당하거나, 손발을 잃거나, 혹은 지금 말한 것 같은 문제가 있거나, 여러 가지 악의 집합체 같은 것이 전쟁입니다. 이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,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
이에 대해서는, 그 일환으로 **위안부** 문제가 있습니다만, 작년 말부터 내각관방의 조정 하에 각 성청에서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를 현재 조사 중입니다. 이러한 일도 있어 외교 연설에 넣는 것은 삼간 것입니다.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, 현재 제소되어 재판 중이므로 그 추이 등도 계속 지켜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”

(중략)

▷ **무라카미** “저는 자유민주당을 대표하여 새로운 정치의 방향을 요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.

(중략)

지난번 미야자와 총리의 한국방문 때 쓰시마 사회당 대표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, **종군위안부** 문제가 한국인들의 과거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 문제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마음 깊은 곳의 문제, 즉 인간의 존엄을 해친 행위로 가슴 아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.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답변, 담화를 들으면 너무나 냉정하고, 무성의하게 들립니다. 사안으로 볼 때 인권도 관계되어 있고 그 경위도 복잡다기한 문제가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, 더욱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. 생각을 들려주십시오."

(중략)

▷ **미야자와 국무대신** "(전략) 우리나라가 오늘날 전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, 역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원은 아시아에 있습니다. 아시아 각국과의 우호, 그리고 일미 간의 우호 관계가 기본적인 틀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시아에서는 과거에 큰 폐를 끼쳤던 적도 있습니다. 이러한 올바른 역사인식도 중요합니다만, 그러한 반성 위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가고자 하는 바입니다.

이른바 **종군위안부**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, 정말로 그분들이 겪으신 고통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합니다. 지난번 한국방문 당시에도 그런 심경을 솔직히 말씀드렸고, 반성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.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의 이른바 **종군위안부** 문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지금으로써는 성실하게 조사하여, 우선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"